

광주 외래 환자 가장 많은 질환은 ‘치은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분석

지난해 55만289명 통원 치료
급성기관지염·치아우식 뒤이어
입원분야 요추·골반 질환 1위
알츠하이머병 진료비 가장 높아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3곳
위암 분야 우수 ‘1등급’ 받아



심평원의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보훈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팀의 수술 장면.



심평원 위암 평가에서 조선대병원·전남대병원·광주보훈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병원 류성엽 외과 교수가 단일골 북강경 위암 수술을 하고 있다.

의료 정보와 의료 기술의 발달 및 표준화로 최근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광주일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광주지원이 보유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광주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순위와 다빈도 질병을 잘 치료하는 우수 의료기관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주요 질환별로 광주지역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서비스 이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심평원의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심사 결정분 자료를 토대로 했다.

◇광주 입원 분야 다빈도 질병

광주지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질환은 ‘요추·골반의 관절·인대 탈구, 염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요추·골반의 관절·인대 탈구 및 염좌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2만 3261명으로 전체 질병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만 955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등통증과 노년백내장, 감염 및 상체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위암·대장암 관련), 어깨병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무릎 관절증, 상체불명 병원체의 폐렴, 기타 척추병증, 협심증, 경추간판 장애, 뇌경색증 등의 순이었다.

질병별 병원 내원일수를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171만 5028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뇌경색증 27만 7461일, 무릎 관절증 14만 5203일, 기타 추간판 장애 13만 9841일, 어깨병변 10만 6798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총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1404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경색증 499억 8800만원, 무릎 관절증 349억 4200만원, 협심증 265억 8400만원 등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1707만 원, 뇌경색증이 1077만원, 담석증이 534만원, 무릎관절증이 460만 원, 협심증이 431만 원 순으로 많이 지출됐다.

◇광주 외래 분야 다빈도 질병은

광주 시민들이 입원하지 않고 병·의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은 외래분야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55만 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외래 진료비를 가장 많이 받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26만 7353명이었다. 다음으로 치아우식(치아 조직이 침해당하는 현상) 22만 3320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6만 1643명, 등통증 15만 9912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15만 3732명, 위·식도 역류병 14만 6270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13만 6765명 순이었다.

질병별로 외래진료 내원일수를 살펴보면 본태성 고혈압이 118만 7742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15만 3183일), 급성 기관지염(75만 4658일), 2형 당뇨병(66만 3578일), 등통증(61만 7790일) 순으로 많았다.

총진료비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514억 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249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등통증 232억, 치아우식 215억, 치수 및 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200억, 2형 당뇨병 193억 순이었다.

◇다빈도 질병 평가 우수기관(1등급)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 가운데 광주지역 우수 의료기관(1등급)을 살펴본 결과 폐렴 진료 우수기관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병원으로는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으로는 광주기독병원과 KS병원, 광주병원, 광주보훈병원, 광주수원병원, 광주씨티병원, 광주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동아병원, 미래로21병원, 신가병원, 첨단종합병원, 하남성심병원 등 이었으며 병원으로는 한사랑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위암 1등급은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그리고 광주보훈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다.

대장암은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두 곳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급성기 뇌졸중은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보훈병원이 1등급을 받았으며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전남대학교 병원이 광주지역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됐다.

◇다빈도 질병 평가 양호기관

광주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이른바 다빈도 질병 중 고혈압 평가 양호기관은 197곳, 당뇨병 평가

양호기관은 120곳으로 조사됐다. 고혈압 평가 양호기관은 북구 57곳, 광산구 46곳, 서구 41곳 등 197곳이었으며, 당뇨병의 경우 북구 41곳, 광산구 26곳, 서구 25곳 등 1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

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지역 다빈도 질병 (2020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순위	입원 분야		순위	외래 분야			
	질병명	환자수		내원일수	질병명	환자수	내원일수
1	요추·골반의 관절·인대 탈구 및 염좌	23,261	77,589	1	치은염 및 치주질환	550,289	1,153,183
2	기타 추간판 장애	19,550	139,841	2	급성 기관지염	267,353	754,658
3	등통증	17,870	52,566	3	치아우식	223,320	399,333
4	노년백내장	13,353	22,746	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61,643	1,187,742
5	감염 및 상체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12,699	69,251	5	등통증	159,912	617,790
6	어깨병변	9,699	106,798	6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153,732	353,410
7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8,225	1,715,028	7	위·식도 역류병	146,270	308,660
8	무릎 관절증	7,583	145,203	8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136,765	257,215
9	상체불명 병원체의 폐렴	7,242	92,547	9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130,603	454,364
10	기타 척추병증	6,449	72,938	10	결막염	127,163	205,645
11	협심증	6,154	32,147	11	감염 및 상체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118,866	175,862
12	치핵 및 항문주위염·혈액전조	5,981	20,345	12	위염 및 십이지장염	117,589	186,440
13	경추간판 장애	5,270	34,057	13	급성 편도염	108,351	188,660
14	뇌경색증	4,638	277,461	14	굴절 및 조절의 장애	107,123	148,522
15	장의 기타 질환	4,158	12,709	15	다발성 및 상체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103,934	186,088
16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065	57,984	16	급성 부비염	102,894	259,243
17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타구, 염좌 및 긴장	3,665	37,290	17	2형 당뇨병	90,540	663,578
18	담석증	3,556	32,741	18	급성 인두염	89,466	153,360
19	2형 당뇨병	3,435	55,976	19	어깨병변	82,628	349,608
20	전정기능의 장애	3,429	16,858	20	두드러기	81,510	161,486

※ 질병 순위는 환자 수 기준으로 선출

가족이 아플 땐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클릭하세요

■ 광주지역 다빈도 질병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기관(1등급) 명단

평가항목	입원 분야	
	의료기관명	소재지
위암	전남대학교병원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동구
	광주보훈병원	광산구
대장암	전남대학교병원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동구
폐렴	광주기독병원	남구
	KS병원	광산구
	광주병원	북구
	광주보훈병원	광산구
	광주수원병원	광산구
	광주씨티병원	남구
	광주한국병원	서구
	광주현대병원	북구
	동아병원	남구
	미래로21병원	서구
신가병원	광산구	
관상동맥우회술	전남대학교병원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동구
	광주보훈병원	광산구
급성기 뇌졸중	조선대학교병원	동구
	광주기독병원	남구
	광주보훈병원	광산구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정보, 심평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에서 찾아주세요.”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을 제외하더라도 위암과 대장암을 비롯,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우리 동네에도 믿고 찾을 만한 병·의원들이 있음에도 병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시간과 돈을 들여 수도권에 찾는 환자들이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정보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페이지에 소개되는 ‘좋은 병원’의 기준은 심평원의 영양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이나 양호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의료정보-지역의료정보 경로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 후 찾기 결과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 메뉴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병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또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개설
요양 급여 평가 1등급·양호 기관
질환·의료기관별 찾기 결과 제공
‘의사·병상 수·진료비’ 등 한눈에

수, 병상 수 등의 의료자원 정보 등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빈도 질병의 주요 증상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민들은 허리질환과 등통증, 노년백내장,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협심증·뇌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빈도 질병을 잘 치료하는 병·의원 정보도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

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들 질병의 위험 요인과 증상을 간단히 소개한다.

허리질환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디스크(척추 추간판 탈출증)’는 척추체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인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밀려나오거나 터지는 것을 말한다. 주요 증상은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下肢放射痛)이 흔한데, 약 87%에서는 두 가지가 다 나타나며, 하지 방사통만 있는 경우도 있다.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될 경우 척추강 조영술과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유병율이 높은 질환은 노년백내장이다.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있어 눈의 주변 굴절기관으로 작용한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돼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이다. 약물치료만으로는 혼탁이 발생한 수정체가 다시 맑아지지 않는다. 백내장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안약들의 경우 큰 부작용은 없지만, 그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알츠하이



머병은 건강한 생활을 통해 상당부분 예방 가능한 만큼 암이나 기타 질병을 막기 위한 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